

게시판 세미나 브레인 라이팅(Brain Writing)

박혜경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교육위원

1. 들어가는 말

연구소에서는 지난 5월 화학산업 교육 활동가 훈련과정(초급과정)^{〈후주 1〉}을 2박 3일간 개최하였다. 이번호에서는 이 교육에서 사용하였던 '게시판 세미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게시판 세미나'는 많은 나라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교육방식이지만, 우리에게 아직 생소하고 또 현장교육에서는 거의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일반적으로 교육기법에는 강의, 토론, 듣기, 소그룹 학습, 시청각 교재활용, 브레인 스토밍, 사례연구, 역할 연기 등 많은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노동자교육에서처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특성을 이해하는데서 출발한다. 즉 성인은 청소년과 달리 자신의 사회생활 경험속에서 체득된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주입식의 교육보다

는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이끌어내도록 하는 참여식 교육방법이 유효하고 또 바람직하다는 것이다.^{〈후주 2〉} 또한 '성인의 기억력'에 관한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읽기만 할 경우에는 10%, 듣기만 할 경우 20%, 듣고 보기만 할 경우 30%, 듣고 볼 경우 50%, 듣고 보고 스스로 발표할 경우 70%, 행동과 결합할 때에는 교육내용의 90% 가까이를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시청각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참가자 중심의 교육방법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

2. 게시판 세미나 - 브레인 라이팅(Brain Writing)

이 교육방법은 교육기법의 하나인 브레인 스토밍(Brain Storming)^{〈후주 3〉} 방법을 약간 변형한 것이다. 브레인 스토밍 기법이 즉흥적인 생각들을 말로 표현하는 것

인데 반해, 브레인 라이팅 기법은 그것을 카드에다 적어내도록 한다. 요컨대 브레인 스토밍에서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브레인 라이팅에서는 카드들이 수북히 쌓이게 된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자기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생각

을 머리속에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된다. 이 기법은 시각적 효과를 통해 교육참가자의 관심을 계속적으로 토론과정에 집중시킬 수가 있으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민주적으로 토론을 운영할 수 있으며, 각각의 카드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면 게시판 세미나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운영방식

게시판 세미나의 구성

게시판 세미나는 여는 그룹토론처럼 조별로 토론을 거친 다음 종합토론으로 이어진다. 한 주제에 대한 조별 토론시간은 30~40분 정도면 충분하다. 조별 토론에서는 몇 개의 주제를 한꺼번에 다루는 것보다 하나의 주제만 다루는 것이 좋다. 심층



토론이 필요하다면 몇 차례 조별 토론을 반복하는 편이 더 낫고, 이러한 방식에 익숙해 진다면 토론 시간은 훨씬 줄어들 수도 있다. 종합발표는 전체 참가자가 몇 개의 조로 구성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한 조당 발표시간은 5~10분 정도면 된다.

이번 교육활동가 훈련과정에서는 둘째 날 저녁식사후 3시간 정도를 배치하여, 세 번의 주제토론과 한번의 종합발표로 진행하였다. 첫째 주제는 단위노조 교육활동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둘째 주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과제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시간배정은 첫째주제 40분, 둘째 주제 30분, 셋째 주제 10분, 종합발표 30분으로 하였고, 진행방식에 대한 안내와 휴식 시간, 이동시간 등을 포함하여 총 3시간을 배정하였다.

일목요연한 의견집약 - 화려한 게시판

구체적인 진행방식을 살펴보면 우선 참가자들에게 가로10cm× 세로20cm 크기의 종이카드와 유성펜을 나누어 준다. 종이카드는 가급적 다양하고, 화려한 색깔로 준비한다. 그래야 시각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진행자는 모든 참가자에게 어떤 주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을 하고, 카드 매수에 제한 없이 적게 한다. 이때 카드 한 장에는 한 가지의 의견만 적게 하고, 글씨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크게 쓰도록 한다. 진행자도 카드에 본인의 의견을 적을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주제와 관련해서 꼭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의견, 그리고 참가자가 미처 제기하지 않을 것 같은 의견을 적게 되면 토론이 더욱 풍부하게 될 수 있다. 카드 작성시간은 10분 정도면 충분하다. 첫째 주제 - 단 위노조 교육활동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1개 조에서만 무려 40여가지의 의견이 나왔다.

카드 작성이 끝나면 진행자가 모두 수거한 후 꿰고루 쉬는다. 참가자에게 하나씩 카드를 보여주면서 큰 소리로 읽어 준 다음에, 뒷면에 풀칠을 하거나, 얇은 스킨 테이프를 이용하여 준비해 둔 게시판에 붙여나간다. 외국의 경우에는 교육용 게시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구점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아쉽게도 이동이 가능한 교육용 게시판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벽면을 이용해야 하는데, 얇은 대자보 용지보다는 조금 뻣뻣한 소포용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소포용지는 문구용품 도매점에 가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게시판의 크기는 카드를 모두 붙일 수 있도록 조절해야 하는데, 대략 대자보 용지 두 개 정도의 크기면 적당하다.

진행자는 제출된 카드를 비슷한 의견별로 분류해서 게시판에 붙여야 하는데, 카드를 어떻게 붙일 것인가에 대해 미리 게시판의 공간을 마음속으로 배분해 두어야 한다. 게시판에 카드를 붙일 때까지 참가자들은 카드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흥미를 가지고 자신이 작성한 의견이 언제, 어디에 부착되는지 시선을 집중하게 된다. 또한 다른 참가자가 적어낸 카드를 보면서 한번 더 생각해 보기도 하고, 비슷한 의견들이 묶여지는 것을 보면서 공통된 의견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진행자는 조금 엉뚱한 의견이 나오거나, 중요한 의견이 나오게 되면 그 배경에 대해 자연스럽게 참가자에게 물어 볼 수도 있고, 그 의견을 어디에 부착하는 것이 좋을지 참가자들과 이야기 할 수도 있다. 게시판에 부착하는 과정에서 생각나는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카드에 적어도 된다. 또한 이미 부착한



카드의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의견이 나오면 다시 때어서 참가자들의 의견을 물어 다른 위치에 부착할 수도 있다. 이처럼 의견을 분류하고, 부착해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다.

첫째 주제에 대해서 모두 40개의 의견 카드가 계시관에 붙여졌는데 대략 6~7가지 종류로 분류되었고, 기타 사항으로 3~5개의 의견이 따로 모아졌다. 여기까지 진행되면, 한 묶음으로 분류된 의견의 제목(title)을 결정하면 된다. 이때는 먼저 나누어준 종이카드와는 색깔과 모양이 전혀 다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형광색 혹은 흰색의 타원형 카드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분류된 의견이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는 표시를 한 작은 카드를 이용해서 강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참가자의 의견을 하나로 빠짐없이 알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빈도수까지 확인되어 공통된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까지 나타나며, 참가자의 의견이 종류별로 일목요연하게 집약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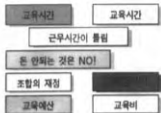
계시관 세미나의 장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대부분의 본반토론의 경우 아무리 시간을 많이 배정하더라도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또 토론내용이 집약되기 보다는 나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토론과정 역시 소수의 의견이나 색다른 의견은 무시되기 쉽고, 한 두명에 의해 토론이 주도되는 경우가 많다. 발표 내용도 서기나 발표자의 의도나 취향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반면에 계시관 세미나 토론방식은 짧은 시간동안 참가자 전체의 의견을 모두 모아낼 수 있으며, 그 의견도 집약된 형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토론에 소외되는 사람 없이 민주적인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또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보다 허심탄회한 의견개진이 가능해 진다.

[그림] 계시관 세미나 방법 (주제: 단위 노조 교육활동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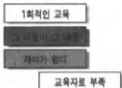
이렇게 첫째 주제에 대한 토론을 마치면 바로 두번째 주제로 넘어간다. 진행방식은 마찬가지이다. "교육활동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참가자들의 카드작성과 분류, 계시관 부착이 이어진다. 먼저 한차례 토론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조금더 짧은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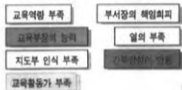
교육여건의 미비



안 일한 프로그램



교육역량 부족



사측의 공세



교현안문제 급급



(그림) 게시판 세미나 방법
 (주제: 단위노조 교육활동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내에 토론을 마칠 수 있었고, 보다 민주적이고 즐겁게 운영할 수 있었다. 다음은 2주제에 대한 토론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표] 교육활동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과제는 무엇인가

순수한 의견집약 - 스티카 게시판

이제 마지막 주제이다. 두 번째 주제에서 토론된 결과에 대해 가장 시급하게 해

야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이다. 이때는 스티카 찍기를 이용하였는데, 우선 10분정도의 휴식시간에 진행자는 타원형 카드에 적힌 집약된 의견을 대자보 원편에 적고 오른편에는 빈칸을 남겨 스티카를 붙일 수 있도록 여백을 주고 참가자에게는 스티카를 나누어 준다. 스티카 개수는 (타원형 카드에 집약된 의견수 + 1)/2개의 공석을 사용하면 된다. 휴식시간을 마치고 순서대로 준비된 게시판에 스티카를 붙이도록 하는데, 이때 하나의 의견에 스티카를 2개까지 붙일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은 중요한 의견을 보다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의견수가 8개여서 앞의 공석에 의해

[표] 교육활동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과제는 무엇인가

문제점(1주제)	실천과제(2주제)	제출된 의견
교육시간부족	교육시간 확보	교육시간 확보, 교육시간 확대 교육시간 확보, 단협 교육시간 확보 교육시간 확보, 단협 교육시간 늘릴 것 교육시간을 O-T로 합의
재정부족	조합비 인상	조합비 정수율 증가, 큰노조 조합비 인상 교육재정 책정, 작은노조 연맹교육지원 교육비 지원 회사측에 압력
참여의식부족	근무시간 활용, 소모임 활용	다양한 교육방법 모색, 근무시간중 교육 재미있고, 도움되는 교육, 노보 활용 교육참여자 시상 현장소모임 활성화(2명)
교육역량부족	강사훈련 실시	학습의 생활화, 강사훈련, 강사훈련 교육부장 교육, 교육활동가 양성 교육훈련강화, 간부강사훈련 상급단체교류, 연맹차원 해결, 위탁교육 전문인 양성
교육자료부족		모범교안 작성, 교육부활동강화 (신문스크랩, 자료 및 책구입) 타사업장 교류, 상급차원의 대책 (교안, 자료, 시기별 교육 실시) 연구소 등과 연대강화
기타	교육관 건립	

4.5개이지만 5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하면 불과 3~4분 내에 셋째 주제를 마칠 수가 있다. 이 방법은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우선 순위를 평가할 때, 참가자들의 합의가 필요할 때, 간편한 여론조사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4. 계시판 세미나의 활용

계시판 세미나 교육방식은 짧은 시간에 참가자 전원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다. 또한

참가자의 의견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일목요연하게 집약할 수 있는데, 의견집약 방식도 나열식이 아니라 중심적인 내용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해준다. 분반토론이 지루하고 형식적으로 흐르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던 교육담당자들은 적극 활용해 보기 바란다.

이번 교육의 마지막 프로그램이었던 '교육활동가 7계명'을 작성할 때에도 참가자들은 즉석에서 계시판 세미나를 활용하였다. 이렇게 해서 공동작업 시간을 예정보다 20분 정도 단축할 수 있었다. 이치

[표] 교육활동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스티키	투표수
조합원의 의견수렴	*****	8표
교육역량의 강화	*****	8표
21세기를 준비하는 핵심적 노동교육	*****	6표
교육시간의 확보	****	4표
교육제정의 확립	*****	5표
교육체계의 확립	***	3표
전진하는 간부	*****	5표

조재료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에 대한 강의 틀 할 경우, 30분은 준비된 강의를 하고, 약 50분 정도 한국경제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참가자들이 제기한 문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토론과 발표를 진행하고 20분 정도의 보충 강의

를 게시판 세미나는 교육 뿐만이 아니라 적은 인원으로 구성되는 각종 회의에서 문제해결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게시판 세미나의 주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토론한 것인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를 주제로 삼을 수도 있고, 한국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주제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특히 지식의 전달을 주요한 목표로 삼는 교육의 경우에는 사전에 30분 정도 미리 강의를 배치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이 때도 차트나 OHP와 같은 시각적인 보

가 덧붙여 진다면, 훨씬 효과적인 교육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유의할 것은 게시판 세미나를 활용하기 전에 진행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어떤 주제 이전 1~2시간 정도 직접 실습을 해 보면 누구나 충분히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좀더 유능한 진행자가 되려면 사전에 진행자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고인 물은 썩는다고 했던가. 아등튼 이 글이 교육담당자들의 창의와 사기를 자극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 1) 교육은 국제화학에너지자문단인 ICEMI의 후원을 받아 3년동안 진행될 교육의 1차 초급과정이었다. 99년에 완료되는 이 교육은 총 12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초급과정은 97년 3회, 98년 2회, 99년 1회로 모두 6회를 실시할 것이며, 중급과정은 초급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하여 97년 1회, 98년 1회, 99년 1회 총 3회, 고급과정은 중급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98년 1회, 99년 1회 총 2회, 마지막으로 99년 12월 초급, 중급, 고급과정을 모두 이수한 교육활동가를 위한 종합과정으로 마무리 된다. 이러한 3개 단계에 걸친 계획적인 교육은 우리나라 어느 조직에서도 추진된 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소에서도 90년부터 현재까지 약 17회 중앙강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이번 3개년 교육을 통해 교육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을 체계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자 한다.
- 2) 우리 현실에 맞는 노동교육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소에서는 고선 2주 1회 정도 노동교육과 관련된 국내 운현과 외국의 노동교육에 대해 발제와 토론 위주의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모범적인 교육방법에 관한 사례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이 결과는 8강당의 교육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중간보고서의 형태로 정리될 예정이다.
- 3) 이 기법은 창조력을 개발하는 훈련기법인데 짧은 시간(5~10분)을 주고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것을 다음것 다 쏟아 놓게 하여 그 가운데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기법이다.